



3면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 재확인

전주매일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음 10월 17일) 제31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축산농가의 삶에 직결”

김관영 도지사, 부안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현장 점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은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김관영 도지사는 9일 가축전염병 최일선 방역현장을 찾아 차단 방역을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높은 부안군 지역내 거점소독시설과 (주)참프레 도축장 등 최일선 방역현장을 각각 점검했다.

김 지사의 이번 현장점검활동은 지난 11월 4일 순창군 신라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 발생

함에 따라 질병 차단방역의 관문인 거점소독시설과 도내 주요 축산시설인 (주)참프레를 방문, 방역추진 현황과 소독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현장활동을 통해 최일선 방역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안군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역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주)참프레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방역관들에게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은 축산농가

삶과 민생물가에 직결되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차단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참프레 관계자들에게 “세계적 경제위기로 민생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발생에 따른 축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며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비록 1건이지만 신라계에 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기 시작한 만큼 방역시설관리, 농장 방역수칙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수기자·부안=김석진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9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부안군 지역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최일선 방역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도민체육대회 ‘더 풍성하게... 더 알차게...’

도체육회, 내년 체전 개최종목 확대 검토 중

운영개선 방안 등 수렴 2개 종목 추가 가능성 커져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내년부터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도민체육대회의 개최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 체육회는 지난 9월 남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진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끝난 이후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도민체육대회 운영개선 방안과 시범종목 희망조사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개최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2개 종목이 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도내 전체 시·군 가운데 8개 시·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내년부터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남원에서 열린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 현장이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군 이상이 해당 종목에 대한 출전 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수와 동호인 육성현황에 맞춰 시범종목 운영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2개 종목이 시범종목 여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체육회는 도민체전 종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를 최종 결

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올해 도민체전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레슬링, 볼러배구, 배드민턴 등 37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김경수기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큰 그림 그려졌다

스마트생태도시·관광객 유치·첨단경제 생태계 조성 등 완주군, 3개 분야 56개 사업 확정... 총사업비는 1조3761억

완주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부흥기를 열어갈 민선 8기 제1 핵심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총 56개 사업에 1조3,000억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완주군은 9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내부 검토와 정책자문위 자문 주민보고회 등 긴밀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사업비 1조3,7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핵심 사업은 3개 분야에 56개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규모는 △스마트생태도시 완주 26건 △천만 관광객 유치 22건 △첨단경제 생태계 조성 8건 등이다.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를 실현할 과제로는 마한 역사문화 벨트 조성, 완주 정체성 확립, 지역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 친환경 생태 숲 조성, 만경강 수변 접근성과 교통인프라 개선 등이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지 개발과 금와습지 생태 탐방시설 조성 등 생태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융합형 관광콘텐츠 확충과 완주 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거점 생활체육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변 레포츠 시설을 신규 조성하며, 순환형 자전거도로와 코스를 개발하는 등 레포츠 마케팅 인프라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첨단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수소 전문기업 유치, 수소산업 인프라 강화,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스타트업 벤처 창업단지 조성, 모두가 누리는 일자리 정책자금 조성·운영 등에 올인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1조3,761억)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8,867억(64.4%), 도비 603억(4.4%), 군비 4,098억(29.8%), 기타 103억(0.8%) 등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을 국비로 매칭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과 협치에 나서는 한편 완주군의

회와 전북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재원 확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 미래 100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들이 확정됐다”며 “방향이 설정되면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완주의 미래를 바꾸고, 한반도의 만경강 미래 시대 개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군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유희태 군정 출범 이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내부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쳤다.

완주군은 지난달 13일 주민 보고회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을 확정했다. 완주군은 앞으로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